

이육사의 사회주의사상과 비평의식

하 상 일*

<차 례>

1. 머리말
 2. 이육사의 생애와 사회주의사상의 형성
 3. 현실주의 문학관과 비평의식
 4. 맺음말
-

1. 머리말

지금까지 알려진 이육사의 시는 시조 1편, 한시 3편을 포함하여 총 40편이다.¹⁾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 해도 1930년 『조선일보』에 처녀작 「말」을 발표한 이후 십여 년 동안 활발한 시작 활동을 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그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보다는 일본, 중국 등을 오가며 활동했다는 점에서 이 정도의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그가 남긴 시의 편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그의 시를 어떤 관점에서 평가해 왔는가 하는 데 있다. 즉 지금까지 발표된 이육사 연구의 대부분이 ‘저항’의 맥락을 강조하는 천편일률적인 의미의 재생산에 있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새로운 문

* 동의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newpoem21@deu.ac.kr).

1) 이육사전집은 현재까지 세 권 출간되었는데, 김학동의 『이육사전집』, 새문사, 1986; 심원섭의 『원본 이육사전집』, 집문당, 1986; 김용직·손병희의 『이육사전집』, 깊은샘, 2004이 있다. 이 가운데 김용직·손병희가 펴낸 전집에는 이전의 전집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새발굴 작품 7편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가장 결정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책을 기본텍스트로 하고 나머지 책들은 보조텍스트로 활용할 것이다.

제제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육사의 문학적 지향이 역사적 현실에 대한 적극적 응전에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문학과 현실의 관련성을 통해 그의 문학세계를 해명하려는 태도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다만 이육사의 사회활동에 너무 경도된 나머지 모든 작품을 역사적·사회적 문맥으로 환원시켜 해석하는 태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²⁾ 특히 「절정」, 「광야」 등 이육사의 후기시 몇 편을 제외하고는 역사의식의 좌표를 뚜렷하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의 시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의 이육사 연구가 시문학에 집중한 나머지 그가 남긴 산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도 문제시할 필요가 있다.³⁾ 그는 생전에 번역소설을 포함하여 소설 3편, 수필 14편, 문예·문화비평 7편, 시사평론 9편, 방문기·서간문·기타 11편을 남겼는데, 당대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부분의 시와는 달리 산문에서는 삶과 문학의 인치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이육사의 문학세계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텍스트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은 그

2) 이러한 문제제기는 80년대 초 김홍규에 의해서 이미 제기된 바 있지만 지금까지도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홍규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육사를 너무 신성화하여 그에 대한 연구마저도 신성화, 우상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육사 연구가 시 해석의 도식성과 삶과 시적 가치 평가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홍규, 「육사의 시와 세계인식」, 『문학의 역사적 인간』, 창작과비평사, 1980, 75~79쪽.

3) 지금까지 발표된 이육사의 산문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홍신선, 「육사소설의 구조」, 『동악이문논집』 제17집, 동악이문학회, 1983.

심원섭, 「이육사의 초기 문학평론 및 소설에 나타난 노신 문학 수용양상」, 『연세어문학』 제19집,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86.

김영주, 「육사수필의 문학성」, 『안동문화』 제14집,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1993.

김장동, 「이육사 소설에 대하여」, 『안동문화』 제14집,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1993.

김삼주, 「이육사의 비평론 고찰」, 『예술원논집』 제25집, 대한민국 예술원, 1996.

유현징, 「이육사(1904~1944)의 시대인식 - 1930년대 시사평론을 중심으로」, 안동대 사학과 석사논문, 2002.

한경희, 「착종된 현실에 대한 부지의 금강심 -- 이육사 수필을 중심으로」,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이육사문학축전 기념문집), 민족문학작가회의 안동지부, 2004.

홍기돈, 「육사의 문학관과 연출된 요양여행 -- 산문 세계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1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05년 상반기.

의 산문을 시 연구를 위한 보조텍스트로 활용하는 데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육사 시 연구의 새로운 맥락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그가 남긴 산문과 역사학계의 연구성과⁴⁾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검토를 통해 이육사에 대한 주관적 신비화를 걷어내고 보수적 민족주의의 압력으로 인해 편향되고 경직될 수밖에 없었던 천편일률적 해석과 오류들을 해소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⁵⁾

본고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육사의 산문을 중심으로 그의 사회주의사상과 비평의식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는 그의 문학을 시, 소설, 수필 등의 전체적 지형 속에서 새롭게 해명하기 위한 전체일 뿐만 아니라, 이육사를 시인으로만 한정 짓는 연구태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문학세계는 그가 남긴 작품 모두를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온전하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 이육사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차원에 머물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이육사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독립운동의 행적과 사회주의사상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비평의식과 유기적으로 관련시킴으로써 그의 문학의 발생적 토대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4) 그 동안 발표된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강만길, 「조선혁명간부학교와 육사 이활」, 『민족문학사연구』 제8호, 민족문학사학회, 1995년 하반기.

김희곤, 「이육사와 의열단」, 『안동사학』 제1집, 안동대 사학회, 1994.

김희곤, 「이육사의 생애에 대한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3집,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00.

김희곤, 「이육사가 걸은 독립운동의 길」,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 민족문학작가회의 안동지부, 2004.

김희곤, 「이육사의 민족문제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3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12.

5) 이에 대해 김경복은, “이육사의 행적과 문학적 실천 속에는 분명한 사회주의적 의식과 실천이 나타나고 있지만 애써 그것의 중요성을 외면하려는 태도가 역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육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으로 “사회주의사상에 입각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경복, 「이육사 시의 사회주의 의식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12호, 한국시학회, 2005. 4.

2. 이육사의 생애와 사회주의사상의 형성

지금까지 이육사의 민족의식 형성은 그가 태어난 안동의 유학적 전통과 선비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즉 퇴계의 주리론적 학맥을 계승한 이육사의 집안은 저항성이 아주 강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외가 친척 가운데 상당수가 의병장으로 활약했다는 점에서 그의 민족의식은 혈연과 지연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는 조부로부터 한학을 배우며 성장했고, 조부가 숙장으로 있었던 보문의숙에서 신식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만 16세가 되던 1920년 도산공립보통학교(전 보문의숙)를 졸업했다. 그 후 장인이 학무위원으로 있던 백학학원을 다녔으며, 그곳에서 교사로 일하던 1924년 4월 무렵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⁶⁾ 이육사가 성장하고 신학문을 익히며 사회활동을 하는 동안 유학적 전통과 선비정신은 그의 신념을 실천적으로 드러내주는 정신적 토양이 되기도 했지만, 반면에 이러한 정신은 오히려 그의 실천을 가로막는 한계로 작용하기도 했다. 즉 민족과 민중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내면에는 선각자적 엘리트의식과 보수적 양반의식이 굳게 자리잡고 있어서 문학적 실천에 있어서는 관념적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다. 그의 시세계가 사상적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적 성격을 견지하면서도 실제 작품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지 못한 채 이미지에 정도되어 버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저항’의 정신으로서의 이육사의 민족의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일본에서의 유학생활과 중국에서의 사회활동을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육사는 1924년 4월부터 1925년 1월까지 9개월 정도 일본 도쿄에 머무르면서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중등 정규과정을 다녔다. 채 1년도 안 되는 짧은 체류기간이었지만 이때 그는 아나키즘을 접하면서 사상 형성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일본에서 활약했던 노동운동가 김태엽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김회곤, 『새로 쓰는 이육사평전』, 지영사, 2000 참조. 이육사의 전기적 사실은 대부분 이 책의 내용을 따랐음을 미리 밝혀둔다.

흑우회의 본거지는 죠시가야꾸(雜司谷區)에 있었다. 회원으로서는 서상한, 신영파, 홍진유, 최규중, 김철, 이육사(청포도의 시인, 북경에서 사망), 이기영, 이흥근, 김복, 이경순(시인), 박흥곤, 박열, 장상중, 그 외에도 일본인으로 소우에이이치로(増永一郎), 쿠리하라이치부(要原一夫) 등이 있었다. 흑우회에서는 일본인 무정부주의자 이와사쿠타로(岩佐作太郎), 가토오이치부(加藤一夫) 등을 밤에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모자를 벗어서 돈을 걸어 다과회를 열곤 했다.⁷⁾

흑우회(黑友會)는 1921년 도쿄에서 한인들이 조직한 흑도회(黑濤會)가 사회주의계열과 아나키스트계열로 분리되면서 후자의 계열이었던 풍뢰회(風雷會)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이육사가 일본에 건너간 1924년 4월에는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칸토 지역에 엄청난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였고, 이러한 혼란 속에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시키고 자경단(自警團)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한인들을 무수히 학살하기도 했다. 이에 저항해 이육사와 같은 안동 출신 의열단원인 김지섭이 일본왕궁 입구 니쥬바시(二重橋)에 폭탄을 던졌고, 지진 발생 이틀 만에 독립운동가 박열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적 정황은 당시 이육사의 민족의식이 주자학적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의식을 더욱 심화하고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본에서 귀국한 이육사는 대구 조양회관에서 신문화 강좌를 중심으로 문화활동을 벌이던 중 1926년 봄 이정기와 함께 북경으로 건너가 비밀결사에 참여했다. 그가 북경에서 만난 인물들 가운데 남형우와 배천택은 ‘다물단(多勿團)’과 관계있고 김창숙은 ‘의열단(義烈團)’과 관계있는 인물들인데, 이들 단체는 당시 아나키즘 사상에 주도되어 독립운동을 한 단체였다.⁸⁾ 이육사는 이들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주자학적

7) 김태엽, 『항일조선인의 증언』, 동경: 불이출판사, 1984, 90~91쪽; 김희곤, 앞의 책, 62~63쪽에서 재인용.

8)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아나키즘운동사』, 형설출판사, 1978, 293~294쪽; 구승희 외, 『한국 아나키즘 100년』, 이학사, 2004, 216~219쪽.

세계관으로는 독립운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자각으로 보다 실천적 운동방법인 아나키즘을 선택한 것이다.⁹⁾ 또한 그는 중국의 항일혁명운동에 긴밀하게 연루되어 있었는데, 1925년에 북경의 중국대학¹⁰⁾을 졸업했고, 김원봉이 이끄는 '유월한국혁명동지회'에 가입하고 이를 흡수하여 상하이에서 결성된 '중국본부한인청년동맹'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육사는 1927년 4월 장지에스(蔣介石)의 쿠데타로 한인 청년학생 대다수가 좌익분자로 몰려 핍박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학업을 수행할 수 없어 그 해 8월 귀국했다. 이후 그는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었고, 1931년 대구시내 배일격문사건(排日激文事件)으로 다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처럼 거듭된 현실적 고통 속에서도 그는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확신과 조직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글을 발표했는데, 1930년 10월 이환(李活)·대구 이육사(大邱 二六四)라는 필명으로 잡지 『별건곤』에 발표한 「대구사회단체개관」이 바로 그것이다.

전국적으로 폭풍우같이 밀려오는 탄압이 나날이 그 범위가
넓어지고 그 도수가 양양됨을 따라 會前에 보지 못하든 수난기

9) 이육사의 시와 아나키즘사상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정대호의 「육사시에 나타난 아나키즘의 수용」, 『현실의 눈, 작가의 눈』, 사람, 2004과 김경복의 앞의 논문을 참조할 것.

10) 1934년에 체포되어 작성한 <신문조서>를 보면 이육사는 1925년 8월 무렵 중국으로 가서 “베이징의 중국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여 2년에 중퇴했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일본경찰 기록에도 그가 “북평 중국대학(북평은 북경)을 다니다가 1927년에 중도 퇴학하고 귀국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김희곤은 『새로 쓰는 이육사 평전』에서 베이징에 ‘중국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다는 자취를 찾을 길이 없고, ‘이환’이란 한인 학생이 1926년 후학기부터 1927년 전학기까지 광둥의 중산대학을 다녔던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이육사가 중산대학을 다녔은 것으로 추정하여 정리하였다. 이에 대해 김재용은 2005 이육사문학축전, 민족문학작가회의 안동지부, 2005. 7. 28의 발제를 통해 이육사가 중산대학을 다녔다는 것은 잘못된 추정이고 실제로 1925년 북경의 중국대학을 다녔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당시 북경의 관공서, 학교 등을 상세하게 묘사한 지도를 보면 분명히 ‘중국대학’이 지도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에 있는 조선의 사회운동이란 것이 일률적으로 침체라는 불치의 병에 걸려 있으니, 다같이 관심하는 바와 같이 이 艱難苦極한 국면을 대국적으로 어느 신방향에 타개하기 전에는 혹 지방을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도저히 활기 있는 진출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중략) 대체로 이 침체라는 것은 그 원인을 두 곳에서 가려 볼 수가 있는 것이니, 그 하나를 외래의 억압이라 하면 다른 하나는 자체의 부진이란 것도 피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중략) 西北鮮의 일반사회 운동이 南鮮의 그것보다 얼마나 더 활기 있는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다같은 억압의 밑에서도 남북의 이만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남조선 지방의 전투분자가 아직도 그 보무가 용감치 못한 자체의 부진이란 책임을 안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항상 前衛에 나선 勇者가 회생을 당하면 連해 곧 진영을 지키고 후임을 계승할 만한 투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니, 새로운 용자여, 어서 많이 나오라.¹¹⁾

이육사가 이 글에서 소개한 단체는 <대구청년동맹, 대구소년동맹, 신간회 대구지회, 근우회 대구지회, 경북 형평사 대구지사, 경북청년연맹>이다. 이 가운데 <대구청년동맹>은 고려공청 경북위원회 책임비서였던 장적우(본명: 장홍상)를 중심으로 대구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한 단체로 1927년 조선청년총동맹의 ‘全鮮的 합동운동’ 방침에 의해 조직되었는데, 특히 장적우는 학생비밀결사조직을 결성하여 학생들에게 사회주의를 전파하고 전위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활동한 인물이다.¹²⁾ 이육사는 이 글을 통해 당시 대구의 사회단체들이 더욱 투철한 사회주의사상을 고취하고 조직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육사의 사회주의사상이 더욱 심화된 계기는 그가 1932년 10월 의열단에서 세운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¹³⁾에 제1기생으로 입교하면

11) 「대구사회단체개관」, 『별건곤』, 1930년 10월; 김용직·손병희 편, 앞의 책, 277~278쪽.

12) 김일수, 「1920년대 경북지역 청년운동」,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307~308쪽.

13) 조선혁명간부학교는 모집 대상 학생들을 민족해방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서부터이다. 그는 1932년 3월 29일자 『조선일보』에 취재 기사를 게재하고 4월 하순에 다시 평티엔(봉천: 지금의 심양)으로 갔고, 그곳에서 의열단¹⁴⁾의 창립멤버요 핵심인물이었던 윤세주¹⁵⁾를 만났는데, 그의 권유에 의해 군사간부학교에 입교하게 되었다.¹⁶⁾ 당시 이육사와 윤세주의 관계는 그가 남긴 수필 「戀印記」를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었다. 이 학교의 주임은 의열단의 단장인 김원봉이었다. 학교의 교육 내용은 의열단의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시기의 의열단은 초기의 무정부주의 사상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많이 수용하였다. 당시 약산의 강의 내용을 보면 첫째, 사회주의자들의 용어답 사용했으며 혁명의 동력을 노동자, 농민에서 찾으려 민족해방이 달성되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의함으로써 큰 틀에서 사회주의들과 인식을 같이 했다. 둘째, 사회주의자들이 배척하던 소시민·민족주의자, 적으로 규정하던 토착 부르주아, 지주들의 혁명성(반일성)을 높이 사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함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사회주의자들과 차이점을 가졌다. 셋째, 국내의 사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대중조직 건설을 강조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민중적 무정부쟁을 강조함으로써 의열단 창단 이래의 노선이던 국내 민중폭동노선을 계승·발전시켰다(염인호, 「김원봉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3; 정대호, 「육사시에 나타난 아나키즘의 수용」, 앞의 책, 144쪽).

- 14) 의열단은 1919년 11월 10일 길림성에서 결성되었다. 단장 김원봉을 비롯하여 윤세주, 이성우, 광경, 강세우, 이종암, 한봉근, 한봉인, 김상윤, 신철취, 배동선, 서상락 등이 가담했다. 행동강령인 ‘공약 10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의를 실행하고,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身命)을 희생하며, 충의의 기백과 희생정신이 확고한 자라야 단원이 될 수 있으며, 단의(團義)를 우선하고 단원의 의무를 급히 하며, 죽지 않으면 단의를 다하며, 한 사람이 아홉 사람을 위하여 아홉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단의를 배반한 자는 학살을 한다는 것이다. 즉 이는 조선의 독립을 위한 비밀결사단체임을 알 수 있다(송건호, 「의열단」, 창작과비평사, 1985; 정대호, 앞의 글, 146쪽).
- 15) 경남 밀양 출신인 그는 호를 석정(石正)이라 했는데, 밀양 3·1운동에 참여하고 망명했다가 신흥학교를 다닌 일이 있고, 1919년 11월 지린(吉林)에서 의열단 결성에 참여하였다. 1920년 국내에 잠입했다가 일경에 잡혀 옥고를 치르고 1927년 2월에 서대문형무소를 출옥하였다. 이후 신간회 밀양지회에서 활약하던 그는 이육사가 평티엔으로 갔던 무렵인 1931년에 그곳으로 갔고, 11년만에 의열단에 합류하였다. 그는 김원봉의 지령을 받고 평티엔과 덴진 그리고 베이징을 중심으로 활약했는데, 1931년에 의열단이 난징으로 이동하여 군사간부학교 설립에 몰두할 무렵에는 그 역시 학교 입교생 모집에 동분서주하고 있었다(김희곤, 앞의 책, 112~113쪽). 윤세주에 대한 더욱 자세한 논의는 성춘복의 「석정 윤세주의 생애와 사상」, 「밀양문학」 제14호, 2001. 11월 참조할 것.
- 16) 강만길, 「조선혁명간부학교와 육사 이환」, 「민족문학사연구」 제8호, 민족문학사학회, 1995년 하반기, 169쪽.

나는 내 고향이 그리울 때나 부모형제를 보고저울 때는 이 인장을 들고 보고 七月章을 한 번 외워도 보면 속이 시원하였다. 아마도 그 翡翠印에는 내 향수와 혈맥이 통해 있으리라.

그 뒤 나는 상해를 떠나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언제 다시 만날런지도 모르는 길이라 그곳의 몇몇 문우들과 특별히 친한 관계있는 몇 사람이 모여 그야말로 최후의 만향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중 S(석정 윤세주 : 필자 주)에게는 나로부터 무엇이나 기념품을 주고 와야 할 처지였다. 금품을 준다 해도 받지 않으려니와 眞正을 고백하면 그때 나에게 금품의 여유란 별로 없었고 꼭 목숨 이외에 사랑하는 물품이라야만 예의에 어그러지지 않을 경우이라, 나는 하는 수 없이 그 귀여운 비취인 한 면에다 “贈 S · 一九三三 · 九 · 一〇 · 陸史”라고 새겨서 내 평생에 잊지 못할 하루를 기념하고 이 따를 돌아왔다.¹⁷⁾

군사간부학교에서의 교육내용은 정치·군사·실습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정치과목은 세계정세와 혁명이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특히 지도그룹은 국공합작 기간에 황푸군관학교를 이수하면서 이미 공산주의 혁명논리를 상당히 수용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교육내용이 공산주의 색채를 강하게 띠 수밖에 없었다. 이들 교과 속에는 항일투쟁에 필요한 특무공작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고, 입교생들은 주 1회의 토론모임을 통해 혁명의식의 강화와 혁명이론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군사간부학교 졸업 무렵 이육사가 가진 사회주의의식은 상당히 강성이었는데, 김원봉이 중국 부르조아계급인 국민당과 타협을 하고 있어 사상이 애매하고 비계급적이라고 비판한 점이나, 졸업기념으로 공연한 세 편의 연극 가운데 이육사가 직접 썼다고 알려진 「지하실」의 즐거리를 통해 그의 정치적 성향을 엿볼 수 있다.¹⁸⁾ 그가 이 연극을

17) 「戀印記」, 『조광』 1941년 1월; 김용직·손병희 편, 앞의 책, 180쪽.

18) 경성의 모 공장 지하실의 어두운 방에서 노동자 일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으로 ‘모월 모일 우리 조선혁명이 성공하다’라는 보도가 있고, 계속하여 지금 용산의 모 공장을 점령하였단가, 지금 평양의 모 공장을 점령하였단가, 지금 부산의 모 공장을 점령하였단가 하는 방송을 해오고 마침내 공산제도가 실현되어 토지는 국유로 되어서 농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식당, 일터, 주거 등이 노동자 등에게 각각 지정되어 완전한 노동자, 농민이 지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조선혁명의 성공’이었던 것 같다. 이는 파업투쟁을 통해 토지를 국유화하고 평등분배를 실현함으로써 공산제도를 구현하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그가 지닌 사회주의의식이 상당히 급진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졸업 후 이육사는 크게 두 가지 임무를 가지고 국내로 들어왔는데, 하나는 국내의 노동자, 농민에 대해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것¹⁹⁾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간부학교 2기생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귀국 후 그는 이러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문기자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1934년 3월 20일 『조선일보』 대구지국 특파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이틀 후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그의 임무와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는 시사평론 쓰기에 집중하여 모두 9편을 발표하였는데, 1934년부터 1936년까지 2년 동안 시 4편, 수필 1편을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당시 그가 여기에 상당히 매진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중국의 정치동향이나 국민운동 및 농촌문제가 대부분으로, 이를 통해 그는 중국

배하는 사회가 실현되었으므로 농민, 노동자는 크게 기뻐하여 ‘조선혁명성공만세’를 고창하고 폐막하였다(『金公信 신문조서』(제2회),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자료』 제31권, 1997, 149~150쪽).

- 19) 그는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입교(1932년 10월)하기 이전부터 급진적 사회혁명론에 입각해 있었다. 1933년 4월 『대중』 창간호에 발표한 「자연과학과 유물변증법」은 이러한 사회의식을 구체적으로 밝힌 글이다. 주로 레닌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말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글을 전개하였는데, 자본주의를 앞세운 제국주의의 침략과정에서 등장한 자본가계급을 비판하고, 자연과학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을 통일된 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이 레닌의 유물변증법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계급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철학적 근거로 유물변증법의 확대와 발전을 주장하였다. 이는 군사간부학교를 졸업하면서 김원봉에게 밝힌 자신의 투쟁목표인 “도회지의 노동자층을 파고들어서 공산주의를 선전하여 노동자를 의식적으로 지도 교양하고, 학교에서 배운 중·한 합작의 혁명공작을 실천에 옮겨 목적을 관철”(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92쪽)하겠다는 의지와 직결된다. 한 가지 덧붙여 수정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 이육사의 평론 「자연과학과 유물변증법」이 『대중』 1934년 4월에 발표된 글이라고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재용은 앞의 발제문에서 「대중」을 직접 확인하여 이 글이 1933년 4월에 발표된 것임을 실증적으로 밝혔다(김재용, 「이육사문학의 저항성 다시 읽기」, 『2005 이육사문학축전 문학토론회 자료집』, 2005. 7. 28, 39쪽).

유학과 군사간부학교를 거치며 형성된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을 시사평론을 통해 실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38년부터 그는 영화, 시나리오, 중국문학사 등에 관한 문학평론을 주로 발표하였고 시와 수필 등을 꾸준히 창작하였다. 이처럼 193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이육사의 활동영역은 문단활동에 집중되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문인들이 일제에 굴복하면서 변절자의 길로 들어선 반면, 이육사는 대구청년동맹의 재조직을 위해 노력했고 1943년 4월 본격적인 항일투쟁의 길을 선택하여 북경으로 다시 갔다는 점에서 가장 의지적인 독립운동가요 문학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²⁰⁾ 이후 그는 모친과 만형의 소상(小祥)에 참여하기 위해 잠시 귀국했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북경으로 압송 1944년 1월 16일 베이징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이육사의 독립운동은 사회주의사상의 형성과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즉 일본에서의 아나키즘 체험에서부터 잦은 중국여행²¹⁾에 이르기까지 그는 민족의식과 사회주의의식의 결합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육사 연구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사실상 함구하고 있었다. 반공주의의 감옥에 갇혀버린 우리 현대사의 억압으로 인해 이육사의 민족주의는 보수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주자학적 전통주

20) 1943년 육사의 마지막 북경행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임시정부와 조선독립동맹을 연결시키는 일에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로 무기를 반입하여 무력항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전자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결국 육사는 좌우합작·협동전선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930년대 중반 이후로 민족적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그로서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좌우합작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가지게 되고, 이를 풀어나가는 일에 그가 나서거나 동참하려 했다는 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성향은 1930년대 중후반에 민족운동계의 전반적인 지형과 동일한 것으로, 육사도 민족문제를 풀어나가는 첨경이 좌우합작·협동전선 구축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실천하려 나선 것이다(김희곤, 「이육사의 민족문제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3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12, 160쪽).

21) 홍기돈은 이에 대해 독립운동 자금을 운반하기 위한 ‘연출된 요양여행’으로 보고 있다. 즉 국내의 독립운동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백산상회가 1927년 일제에 의해 정체가 발각되어 문을 닫게 됨에 따라 독립자금을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육사의 잦은 중국 출입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다(홍기돈, 앞의 논문, 295~303쪽 참조).

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획일화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물론 그가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주리론적 사유는 감정과 관계되는 '흥(興)'을 중시하는 주기론과 달리 이성과 도덕성과 관련된 '지(志)'를 강조한다는 점²²⁾에서 사회주의의식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²³⁾ 하지만 이러한 해석의 결과 역시 '민족적 저항시인 이육사'라는 동어반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산문의 성격과도 다소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육사의 문학세계를 총체적으로 해명하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육사 연구의 방향은 시문학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산문 중심의 연구를 통해 시문학을 다시 점검하는 차원으로 새롭게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3. 현실주의 문학과 비평의식

이육사가 남긴 평론은 모두 16편인데, 시사평론 9편, 문예·문화비평 7편으로 분류된다. 1936년까지 그는 시사평론을 주로 썼는데, 「노신추도문」²⁴⁾을 발표한 이후 문예비평에 대한 관심이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노신추도문」은 노신의 사망 소식을 듣고 곧바로 『조선일보』에 연재한 것으로, 이육사의 문학관이 노신의 강력한 영향 아래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노신 약전(略傳), 노신과의 만남에 대한 회고, 그의 생애와 문학활동의 전 시기를 개략적으로 살피는 작품론 등으로 이루어져 노신 평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육사의 시사평론 가운데 5편²⁵⁾이 중국정세를 비

22) 이러한 관점에서 이육사의 시세계를 연구한 논문으로 박현수, 「이육사의 시학과 주리론적 미학체계」, 『현대시와 전통주의의 수사학』, 서울대 출판부, 2004가 있다.

23) 이에 대해 조두섭은, 이육사의 시가 현실의 구체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담론구성체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그의 시에서 사회주의적 현실인식은 최종의 순간에 주자학의 담론구성체 내에서 관념화된다고 보았다. 즉 그의 시는 주자학적 사유와 사회주의적 현실인식이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최종 심급의 초담론은 주자학적 담론이 된다는 것이다(조두섭, 「조인의 시학」, 이강연·조두섭, 『대구·경북 근대문인연구』, 태학사, 1999, 130~131쪽).

24) 「조선일보」, 1936년 10월 23, 24, 25, 27일.

관적으로 살펴본 글이고, 노신의 첫소설집 『吶喊』에 수록된 「고향」을 번역하여 『조광』, 1936년 12월호에 실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는 노신을 비롯한 중국문학에 대한 소양을 자신의 문학관 형성의 중요한 토대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육사가 노신의 문학관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정립하고자 한 것은 문학과 현실 혹은 예술과 정치의 관계에 있었다. 독립운동과 사회주의사상에 기반을 둔 문학활동을 전개하고자 한 실천적 문학인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인식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조선 문단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술과 정치의 혼동이니 분립이니 하여 문제가 어찌 보면 결말이 난 듯도 하고 어찌 보면 미해결 그대로 있는 듯도 한 현상인데, 노신같이 자기 신념이 굳은 사람은 이 예술과 정치란 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중략)

노신에 있어서는 예술은 정치의 노예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적어도 예술이 정치의 선구자인 동시에 혼동도 분립도 아닌, 즉 우수한 작품, 진보적인 작품을 산출하는 데만 문호 노신의 위치는 높아졌고, 아Q도 여기서 비로소 탄생하였으며, 일세의 비평가들도 감히 그에게는 함부로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²⁵⁾

노신의 주장의 핵심은 “예술이 정치의 선구자”라는 점과 “우수한 작품, 진보적인 작품을 산출하는” 것이 예술창작의 당면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학의 효용적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우수하고 진보적인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예술과 정치의 관계는 서로 뒤섞여 구별되지 않는 ‘혼동’의 상태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서로 별개로 취급되는 ‘분

25) 「五中全會를 앞두고 外分內裂의 中國政情」, 『신조선』, 1934년 9월; 「危機에臨한 中國政局의 展望」, 『개벽』, 1935년 1월; 「公認 “갱그”團 中國靑幫秘史小考」, 『개벽』, 1935년 3월; 「中國의 新國民運動 檢討」, 『비판』, 1936년 8월; 「中國農村의 現狀」, 『신동아』, 1936년 8월.

26) 「노신추도문」, 김용직·손병희 편, 앞의 책, 214~216쪽.

럽'의 상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예술은 정치를 선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선구자의 위치에서 민족정신을 개조하는 계몽적 효용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노신이 생각하는 우수한 작품, 진보적인 작품의 판단근거는 '예술의 선구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했느냐 하는 점에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술의 선구성이란 투철한 현실인식과 미적 형상화의 결합에서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푸로 문학가는 반드시 참된 현실과 생명을 같이하고 혹은 보다 깊이 현실의 맥박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그러나 구사회를 조그만치 공격하는 작품일지라도 만약 그 결점을 분명히 모르고 그 病根을 투철히 파악치 못하면 그것은 유해할 뿐이다. 애석한 일이나마 현대의 푸로 작가들은 비평가 까지도 왕왕 그것을 못한다. 혹 사회를 正視해서 그 진상을 알려고도 않고, 그 중에는 상대자라고 생각하는 편의 실정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중략)

옛것을 분명히 알고 새로운 것에 看到하고 과거를 了解하여 장래를 추단하는 데서만 우리들의 문학적 발전은 희망이 있다. 생각전대 이것만은 현재와 같은 환경에 있는 작가들은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 그래야만 참된 작품이 나오는 것이다.²⁷⁾

이육사는 노신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참된 작가는 역사의 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지녀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철한 역사의식을 담아내는 작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작가는 당대의 현실에 나타난 “결점”과 “病根”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사회적·역사적 모순을 바로 잡는 선구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육사가 노신의 문학관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은, 예술창작에 있어서 현실을 진실하고 명확하게 묘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창작모략’의 차원으로 귀결된다.²⁸⁾ 이런 점에서 그의 비평의식은 무엇보다도 ‘리얼리즘’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쟁점화하였다.

27) 「노신추도문」, 218~219쪽.

28) 심원섭, 앞의 논문, 160쪽.

19세기의 廣大한 소설문학의 가치도 결국 一言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인간생활의 진실한 기록이었든 때문이 아니든가. (중략) 중요한 사실은 자연주의 ‘레알리즘’의 발생이다. 이것이 이때까지의 모든 ‘로-맨스’를 파괴하면서 현실에 충실한 기록으로 소설을 변모시키고 말았다. (중략) 문필이란 수공업적 형식에 의한 사진인 것이다. 내계와 외계를 그냥 그대로 묘사하여 내려는 표현수법은 그것이 넉넉히 존재할 수 있든 그 사회의 생산과학의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든 것이다. 그리고 그 표현의 원리가 사진을 목표로 했을 때 그 원리를 규정한 과학은 사진을 부여하였고 사진은 자연주의의 원리의 가장 간단한 구체화이었다.²⁹⁾

“인간생활의 진실한 기록”, “현실에 충실한 기록”, “문필이란 수공업적 형식에 의한 사진”이란 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이육사가 생각하는 창작의 기본적 태도는 소박한 의미에서 모방론적이고 반영론적인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있었다. 즉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한 소설, 이를테면 자연주의 소설, 보고문학적 소설 등에 관하여 아주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그는 소설의 구조에 있어서도 현실구조의 반영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하면서 소설은 당대 사회에서 폐기되어야 할 모순구조를 담아냄으로써 독자들에게 비판적 태도와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는 노신의 작품 가운데 「狂人日記」를 높이 평가했다.

이 문제의 소설 「광인일기」의 내용은 한 개 妄想狂의 일기체 소설로서 이 주인공은 실로 대담하게 또 명확하게 봉건적인 중국 구사회의 악폐를 痛罵한다. 자기의 이웃사람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자기 가정을 격렬히 공격하는 것이다. 가정-가족제 도라는 것이 중국 봉건사회의 사회적 단위로서 일반에 얼마나한 해독을 끼쳐왔는가. 봉건적 가족제도는 固定化한 儒敎流의 宗法 사회 관념하에 당연히 붕괴되어야 할 것이면서 붕괴되지 못하고 근대적 사회의 성장에 가장 근본적인 장애로 되어 있는 낡은 도

29) 「예술형식의 변천과 영화의 집단성 — ‘씨나리오’ 문학의 특징」, 『청색지』, 1939년 5월; 김용직·손병희 편, 앞의 책, 231~233쪽.

덕과 인습을 여지없이 통째였다.³⁰⁾

이육사는 노신의 “대작은 모두 辛亥革命 전후의 봉건사회의 생활을 그린 것으로, 어떻게 필연적으로 붕괴하지 않으면 안 될 특징을 가졌는가를 묘사하고,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살아갈까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의 소설은 “당시의 혁명과 혁명적인 사조가 민중의 심리와 생활의 ‘디테일스’에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가장 ‘레알’하게 묘사한 것”³¹⁾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사회의 모순상과 폐악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반영, 이상적 전망의 제시, 인물의 전형성 등을 소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토대로 인식했다. 이러한 점은 에밀 졸라 이후 자연주의 리얼리즘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연결되는 초기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성격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³²⁾ 물론 그의 리얼리즘적 인식과 태도를 두고 명확히 사회주의적이라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는 미약하다. 다만 그가 앞서 발표한 시사평론의 성격이나 독립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주의의식과의 유기적 관련성을 염두에 둘 때, 그가 생각하는 리얼리즘의 방향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리얼리즘론은 영화장르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서 더욱 발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 영화야말로 집단의식을 고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르임을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즉 “영화에 있어서는 개인의 운명보다는 집단의 운명이 주요한 테마”이므로, “수직적으로 역사를 말하는 대신 水平線의으로 지리를 말하고 개인을 묘사하는 대신에 집단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영화는 무엇보다도 “집단의 심리와 성격과 운명이 描出되어야 한다”³³⁾는 점을 가장 중요한 장르적 특성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수공업적 형식에 의한 사진으로서의 자연주의 소설은 기술공학적 형식에 의한 사진으로서의 영화에 의해 해체된다는 점에서 영화를 소설보다 우월한 장르로 인식했

30) 「노신추도문」, 211~212쪽.

31) 「노신추도문」, 213쪽.

32) 김삼주, 앞의 논문, 45쪽.

33) 「예술형식의 변천과 영화의 집단성 -- ‘씨나리오’ 문학의 특징」, 232쪽.

다.³⁴⁾

‘팔·박크’의 소설 『대지』는 말할 것도 없이 ‘阿蘭’이란一女성이 주요한 ‘테·마’로 되어 있는 것이고 영화 「대지」는 그것을 각색 촬영한 것이지만 ‘아란’의 운명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는 소설 같은 것은 이 영화에 멀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王龍의 일가가 부침하는 그 운명은 소설에 있어서는 결국 소설적인 내용인 것이었고, 영화에와 같이 울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중략)

영화 「대지」에 있어서 가장 생생한 ‘레알리티’를 느끼게 한 장면은 무엇보다도 기근의 大群이 기차를 향하여 쇄도하는 장면과 약탈 때문에 군대가 內動하는 곳과 蝗虫의 대군이 글자 그대로 운하같이 襲來하는 곳이었다. 그런 장면에는 왕룡 일가의 운명보다도 중국 민중 전체의 운명이 놀랄 만한 ‘레알리티’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을 육박하는 것이다. 그 중에도 황충의 대군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민중의 雄姿, 이러한 자연의 暴威와 싸우는 때에 개인간의 사소한 감정적 쟁투 같은 것은 전체를 위하여 소멸되고 사람들은 모다 일치단합하여 당면의 적을 퇴치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과 자연과 투쟁하는 장대한 서사시가 있고 영화예술의 기록적 우월성이 있는 것이다.³⁵⁾

이육사가 소설보다 영화를 우월한 장르라고 인식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느 것이 독자들이나 청중들에게 더욱 사실적으로 다가가느냐

34) 1930년대 말 이육사는 소설장르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면서 자신도 소설창작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심원섭은, “육사가 소설창작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노신의 성공적인 문학작 투신에 있지만, 개인적인 취향이나 어릴 때부터 이미 체질화해온 문학적 기질의 차이, 또 소설을 통한 당당한 현실대응이 날로 어려워지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1930년대 후반이라는 시기상의 난점을 무릅쓰고 육사가 실제로 창작한 ‘소설적인 글’은, 노신의 어두운 폭로소설들이 불러일으켰던 사회적 충격이나 소설기법상의 원숙미를 뒤따라 가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더구나 ‘고향’과 같은 작품이 지닌 주제의 역기능적인 면에 깊이 빠져드는 주제면의 파탄을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소설의 창작을 더 이상 계속해 나갈 수가 없었다”(심원섭, 앞의 논문, 28~29쪽)고 파악한다. 당시 이육사는 이러한 소설창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르가 바로 영화라고 보았던 것 같다.

35) 「예술형식의 변천과 영화의 집단성 — ‘씨나리오’ 문학의 특징」, 238~239쪽.

하는 점과 개인의 운명보다는 집단의 운명을 담아내는 데 어느 것이 더욱 적합하느냐 하는 데 있었다. 즉 현실의 모습들을 문장으로 묘사하는 것은 독자의 상상력 속으로 굴절되어 일종의 이미지로 전달되지만, 영화는 현실의 정황들을 바로 눈앞에 펼쳐진 현재적 사건으로 인식하는 직접성을 지니고 있어서 소설장르보다 더욱 사실성을 강하게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주의 소설이 개별적 인물들의 사실적 묘사에 국한되는데 비해 영화 속 인물들은 한 개인의 운명을 통해 전체 집단의 운명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리얼리즘의 ‘전형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에 있어서의 작중의 인물과 독자와의 친밀관계” 이상으로, 영화에서는 관객이 영화 속 인물들을 실제 인물과 같이 인식하므로 “이성과 판단을 마비시키는 감각적 표상”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육사는 자연주의의 종언을 확신하고 소설의 생명력을 의심할 정도로 영화의 기록분화적 우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리얼리즘론은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고 논리적 충돌이 많아서 그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서사시와 소설의 역사적 차이를 언급하면서 특정한 개인을 추구하고 개성을 묘사하는 데 그치는 소설과는 달리 집단적인 제제를 취급하는 서사시의 우월성을 주목함으로써 영화를 서사시의 차원에서 이해하려 한다는 점이다. 즉 “집단 전체가 힘을 합하여 건설적인 목적을 향해서 투쟁하는 시사시적 ‘테-마’가 영화에서 발전하였다”³⁶⁾고 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대립과 분열에서 벗어난 총체성의 상실에 맞서는 예술장르의 효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계몽적 성격은 문학과 예술이 역사를 선도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의 선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그의 문학관과 온전히 일치한다. 그의 수필 「계절의 오행」에는 이와 같은 행동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문학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내가 들개에게 길을 비켜줄 수 있는 검양을 보는 사람이 없

36) 「예술형식의 변천과 영화의 집단성 --- ‘씨나리오’ 문학의 특징」, 237쪽.

다고 해도 정면으로 달려드는 표범을 겁내서는 한발자욱이라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내 길을 사랑할 뿐이오. 그렇소이다. 내 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내 자신에 희생을 요구하는 노력이오. 그래서 나는 내 기백을 키우고 길러서 金剛心에서 나오는 내 시를 쓸지언정 유언은 쓰지 않겠소. 그래서 쓰지 못하면 죽어 화석이 되어 내가 문헌 척토를 향기롭게 못한다곤들 누가 말하리오. 무릇 유언이라는 것을 쓴다는 것은 팔십을 살고도 가을을 경험하지 못한 俗輩들이 하는 일이오. 그래서 나는 이 가을에도 아예 유언을 쓸려고는 하지 않소. 다만 나에게는 시를 생각한다는 것도 행동이 되는 까닭이오. 그런데 이 행동이란 것이 있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한히 너른 공간이 필요로 되어야 하련마는 숯벼룩이 꿀앓을 만한 땅도 가지기 못한 내라 그런 화려한 팔자를 가지지 못한 덕에 나는 방안에서 혼자 곰처럼 뒹굴어 보는 것이 오.³⁷⁾

그가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문학생신은 자신을 해치려는 들개와 같은 약자에게는 겸양을 베풀 수 있지만, 정면으로 달려드는 표범과 같은 강자 앞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인한 투쟁정신이다. 즉 “그가 의도하는 시란 공격자를 향한 저항행위이며 ‘금강심’과 같은 기백의 표출”³⁸⁾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육사의 문학관과 리얼리즘론은 역사적 모순이 심화된 당대의 현실에 대한 정직한 묘사와 인물의 전형성 창출을 통해 1930~40년대 우리 민족의 상처와 고통을 초극하려는 의지적이고 계몽적인 효용성을 지향하였다. 그의 말년작인 「절정」³⁹⁾에는 이러한 그의 문학적 의지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근원적인 면에서 자기극복의 과정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고뇌의 절정에서 현실인식과 대결정신, 그리고 예술의식의 비극적 화해를 성취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이고,⁴⁰⁾ 조국상실과 민족수난이

37) 「계절의 오행」, 김용직·손병희 편, 앞의 책, 162쪽.

38) 김삼주, 앞의 논문, 51쪽.

39) 『문장』, 1940년 1월.

40) 김재홍, 「육사 이원록 - 투사의 길, 예술의 길」, 김용직 외,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1986, 273쪽.

라는 역사의 극한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사람의 투사가 자신의 삶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종적인 의의를 부여하는 결단의 자리를 형상화한 것이다.⁴¹⁾ 결국 “강철로 된 무지개”에서 “강철은 그냥 무지개가 황홀하고 따뜻하고 밝은 느낌을 주는 것에 비해 차갑고 단단하게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것으로, 당대 일본 제국주의가 새로운 세기로 전환되어 가는 소멸의 존재이긴 하나 당대의 역사적 존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옥죄는 비정한 통로임이 분명하다는 인식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의 의미는 “겨울이라는 세계사적 전환의 시점을 맞아 제국주의라는 비정한 현실에 대해 그만큼 강인한 혁명정신으로 넘어가야”⁴²⁾ 한다는 자각과 다짐을 선언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이육사의 문학을 새롭게 접근하기 위한 전제로 그의 생애와 사회주의사상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그가 남긴 비평, 수필 등 산문을 분석함으로써 현실주의문학관과 비평의식의 방향을 논의해 보았다. 우선, 그 동안 이육사 연구의 대부분이 시문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논의 대부분이 ‘저항’의 맥락을 강조하는 획일적 시각에서 재단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방향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물론 그의 문학세계 전반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저항의 문맥을 제외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그의 문학관은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비평의식 또한 현실과의 치열한 대결을 바탕으로 한 리얼리즘의 정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육사 연구에서 강조된 ‘저항’은 보수적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제기된 주관적 신비화의 경향을 불식시키지 못함으로써, 그의 문학에 내재된 사회주의의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편향된 담론의 재생산에 머물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이육사 연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

41) 김홍규, 앞의 논문, 101쪽.

42) 김경복, 앞의 논문, 106~107쪽.

로서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가 남긴 산문을 시 연구를 위한 보조텍스트로 활용했던 그 동안의 잘못된 연구태도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의 전기적 사실과 평론, 수필을 중심으로 이육사의 문학관과 비평의식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의 문학관은 일본과 중국에서의 독립운동과 사회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초극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문학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현실주의적 성격을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비평의식 역시 이러한 현실주의적 성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법론으로 '리얼리즘'을 선택함으로써 현실의 정확한 묘사와 인물의 전형성을 예술창작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았다. 결국 이육사의 현실주의 문학관과 비평의식은 문학과 예술이 역사를 선도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에 예측되지 않고 오히려 정치를 선도하는 울곧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지향성을 드러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이육사의 문학적 태도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주의의 논리 안에서 신비화된 그의 시세계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관점으로만 평가될 뿐이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이육사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그의 시와 산문 사이에 가로놓인 괴리와 모순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의 문학세계 전반을 일관되게 논리화하는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주요어: 이육사, 사회주의, 아나키즘, 민족주의, 현실주의문학비평.

참고문헌

- 강만길, 「조선혁명간부학교와 육사 이활」, 『민족문학사연구』 제8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5년 하반기.
- 구승희 외, 『한국 아나키즘 100년』, 이학사, 2004.
- 국가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자료』 제31권, 1997.
- 김경복, 「이육사 시의 사회주의 의식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12호, 한국시학회, 2005. 4.
- 김삼주, 「이육사의 비평론 고찰」, 『예술원논문집』 제25집, 대한민국예술원, 1996.
- 김영주, 「육사수필의 문학성」, 『안동문화』 제14집,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1993.
- 김용직·손병희 편, 『이육사전집』, 깊은샘, 2004.
- 김일수, 「1920년대 경북지역 청년운동」,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 김장동, 「이육사 소설에 대하여」, 『안동문화』 제14집,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1993.
- 김재용, 「이육사의 문학의 저항성 다시 읽기」, 2005 이육사문학축전 발제문, 민족문학작가회의 안동지부, 2005. 7. 28.
- 김재홍, 「육사 이원록 - 투사의 길, 예술의 길」, 김용직 외,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1988.
- 김학동, 『이육사전집』, 새문사, 1986.
- 김홍규, 「육사의 시와 세계인식」, 『문학의 역사적 인간』, 창작과비평사, 1980.
- 김희곤, 「이육사와 의열단」, 『안동사학』 제1집, 안동대 사학회, 1994.
- 김희곤, 「이육사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3집,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00.
- 김희곤, 『새로 쓰는 이육사 평전』, 지영사, 2000.
- 김희곤, 「이육사의 민족문제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3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12.
-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아나키즘운동사』, 형설출판사, 1978.
- 박현수, 「이육사의 시학과 주리론적 미학체계」, 『현대시와 전통주의의 수사학』, 서울대출판부, 2004.

심원섭, 「이육사의 초기 문학평론 및 소설에 나타난 노신 문학 수용양상」,
『연세어문학』 제19집,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86.

심원섭, 『원본 이육사전집』, 집문당, 1986.

유현정, 「이육사(1904~1944)의 시대인식 — 1930년대 시사평론을 중심으로」, 안동대 사학과 석사논문, 2002.

이강언·조두섭, 『대구·경북 근대문인연구』, 태학사, 1999.

홍기돈, 「육사의 문학관과 연출된 요양여행 — 산문 세계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1호, 한국근대문학회, 2005년 상반기.

홍신선, 「육사소설의 구조」, 『동악어문논집』 제17집, 동악어문학회, 1983.

Abstract

Socialist Thought and Critic Consciousness of Lee Yuk-Sa

Ha, Sang-Il

This paper discusses socialist thought and critic consciousness of Lee Yuk-Sa. Most studies on poems of Lee Yuk-Sa have been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ism. However, it is required to interpret his poems in terms of socialist consciousness.

Part II discusses life of Lee Yuk-Sa and formation of socialist thoughts. Lee Yuk-Sa joined Uiyuldan(의열단) to come into contact with anarchism and Marxism as socialist thoughts. And he received socialism education in Chosun Revolution School of Military and Politics(조선혁명간부학교). So it is necessary to study his works from the viewpoint of socialism.

Part III discusses realistic literary viewpoints of Lee Yuk-Sa, focusing on his novels, essays, criticism. He emphas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reality focusing on literature of Lu Xun(노신). Especially, he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mind and method of realism, based on socialist thought.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synthetically study the whole aspect of his literary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 **Key Words:** Lee Yuk-Sa, socialism, anarchism, nationalism, realistic literary criticism.

논문투고일 : 2005년 9월 1일

심사완료일 : 2005년 10월 7일

게재결정일 : 2005년 10월 18일